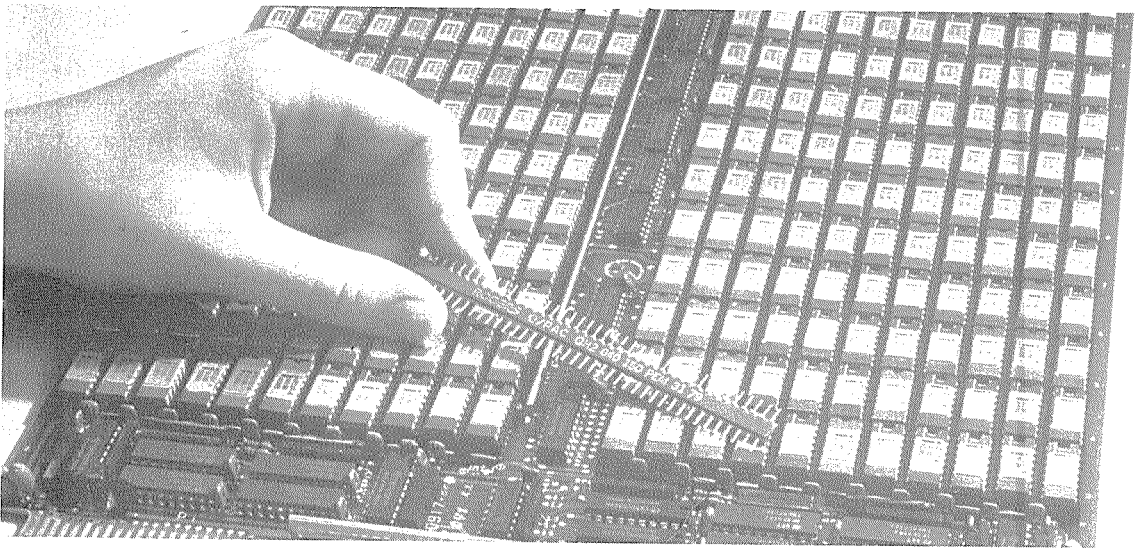


電子部品産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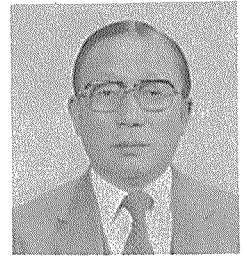
育成 發展을 위한 設問調査



設 問 內 容

- 1) 전자부품 및 소재 공업의 육성시책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부품업체의 전문화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3) 정부는 86년까지 전반적인 수입자유화 체제를 갖출 계획인데 부품업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 4) 대기업의 부품분야 참여에 대한 의견과 만일 허용한다면 그 분야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다양한 전자부품 및 소재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품종별로 중소기업을 전문생산 업체로 육성하여 시장성이 좁은 국내판매를 탈피하여 일부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Set Maker인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공급케 하므로써, 일종의대소기업간 계열화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상용하는 모든 공산품이 거의 전자화 추세에 있고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부품 구독난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때에, 국내기업체의 부품전문생산업체로의 육성은 시급하다고 본다.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제품은 대기업과의 계열화가 필요하고, 보다 소규모로 가능한 품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전문화하여 최대한의 부품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현재의 국내부품제조업계는 일부 특종부품을 제외하고는 내수에 치우쳐 있는 실정인바, 업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품질의 향상과 가격절하를 꾀하여야 하며 부품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수입자유화의 시책은 국제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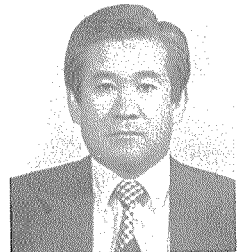


金 洪 燦
廣林電子工業(株)社長

의 배양, 기업의 발전과 품질의 향상면에서, 또한 자급자족의 뜻에서도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하는 시책이라고 믿는다.

- 4) 부품업체의 전문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은 고도의 기술입력과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전자부품, 일례로 64KD RAM 등을 대기업이 담당하여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므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국위선양, 외화획득에도 이바지하여야 하겠으나 소규모의 시설과 기술인력으로 가능한 제품은 중소기업의 고유품종으로 설정하여 대소기업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함이 바람직하다.

- 1) 국내기업에 의한 소재공업의 착수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행정유도로 대기업들이 소재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갖고 중소기업이 전자부품 생산에 이바지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수입되는 소재에 대하여는 수입관세의 인하로 부품공업에 활력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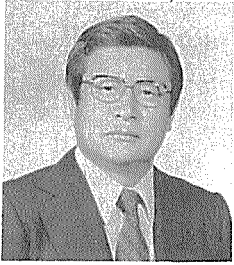


李 承 元
金岡電子(株)社長

- 2) 부품업체의 전문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형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부품의 집합체가 완제품이므로 부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품생산 업체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정부나 대기업들도 함께 지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 3) 수입자유화에 대처해 살 길은 질과 가격임은 말할 나위 없는 일이니만큼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의 합리화로 생산가에 모든 관심을 쏟는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부언해서 같은 값, 같은 질이면 국산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국산품 애용심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4) 부분분야에의 대기업참여는 대기업형 부분분야나 소재공업에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지양되어야 한다면 품목의 성격상 중소기업형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의 사용품이 많다고 하여 자금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막는 일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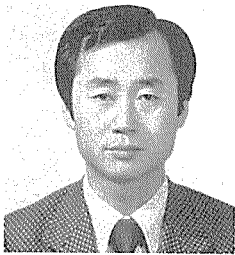


許 慎 九
(株) 金星社 社長

- 1) 전자산업은 첨단기술의 핵심으로 기술발전이 급속하며 기술의 파급효과 및 관련시장이 방대하여 각 국가에서 저마다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 개발추진 중으로 국가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기술이전의 기피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른기간 내 선진국 수준에의 도달을 위해선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전문화된 중소기업과의 계열화에 의한 협력 체제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 2) 부품사업이란 독특한 고유기술이 요구되고 수익 확보에 필요한 경제적 단위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시장형성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부품으로 갈수록 이의 요구도는 더욱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설비의 증복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화에 의한 부품업체 육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계열화 품목의 지정, 전략부품 업종의 선정육성등 정부지원책이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인 영역설정, 과잉보호에 의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해외시장의 개척, 다변화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3)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책은 무엇보다도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 제고이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선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우수인력의 확보육성, 최신 기술정보의 수집, 과감한 기술도입, 전사적 품질관리 운동의 전개 등이 필요하며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후설비의 대체, 자동화·성능화 투자의 확대, 원가절감 운동등 경영합리화의 적극 추진이 요구된다.
- 4)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기술 개발의 급속한 발전과 개발·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하여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거나 개발 완료된 부품이라도 품질수준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수출신장을 우려 선진국에서의 기술이전기피 현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첨단제품 개발을 위해선 관련 핵심부품 개발이 선행조건으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과의 동등한 수준의 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하여 기술·자본집약적인 분야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黃 性 博
大亜리드선(株) 社長

- 1) 전자공업을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제품생산보다는 사실상 부품 및 소재 생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 및 관련산업과 제품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자공업 발전에 필요하지만 국내 사정은 어느 한쪽은 발전했지만 다른 한쪽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취약부분이 바로 부품 소재 산업인 것이다.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1) 고유 중소기업 품목의 확대
 - (2) 연구 조합의 활성화
 - (3) 선진기술 도입의 확대 등이 있겠다.

- 2) 반드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의 기본원칙인 3S 즉,

- (1) 단순화 (Simplification)
- (2) 표준화 (Standardization)
- (3) 전문화 (Specialization)

등이 이루어져야 기술 개발이 따르고 품질 향상, 생산성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하여 세계 부품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이룩할 수 있어 부품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3) 국내 시장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하여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 및 생산라인을 자동화하여 우선 국내부터 기초를 닦아나가면서 계획성있게 차근차근 그 때를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4) 대기업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품 분야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기업의 참여로 공급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리라 믿는다. 품질이 나쁘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실과 변명이다. 다만 기술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에 대해서만 대기업이 참여하여 전자공업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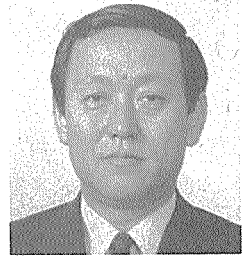
1) 간과해서 안 될 몇 가지 점을 들어 본다면, 첫째, 선진국의 부품 및 소재산업의 자본집약화에 비해 중소기업형태로서의 경쟁력의 여부, 둘째,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에 있어서 Know-how로 인한 애로 또는 투자 여건의 불비로 인해 높은 외국의존도, 셋째, 같은 범주의 제품일 지라도 용도에 따른 국내 생산의 여부(예로, 컬러TV와 컬러 Monitor의 부품) 등이다.

2) 부품업체가 독점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도 부품의 품질이 보장되고 그가격이 국제경쟁력이 있을 때 구태여 신규투자를 할 필요도 없거니와 참여할 업체도 없다고 생각한다.

선진공업국의 경우를 살펴 보더라도 전문화 계열화 과정이 정부의 강력한 지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3) 정부의 자유화 계획은 오히려 기계쪽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외국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국민의 기호가 외국의 브랜드에 집착되어 있고 외제품에 호기심을 갖는한 국내전자제품 시장은 외국 제품으로부터 상당한 침식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부품의 해외판매



金 容 元

大宇電子(株) 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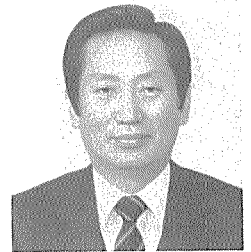
망을 늘리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국제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라 생각된다.

4)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부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업체가 눈에 띄고 있다. 이제와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금지한다면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감이 든다. 국제시장에서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민수용기기를 볼 때 핵심부품을 자체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얻는 이윤으로 오히려 기기의 수출가격 탄력성을 갖게 하는 점도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한다. 특기할 점은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분야에는 자본집약적인 반면 규모와 숙속효과(習熟効果)가 커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도 많다고 생각한다.

1) 우선 소재자체의 국산화 개발로 가격경쟁력에 대처해야 하고 부품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전문업체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

2) 부품별야별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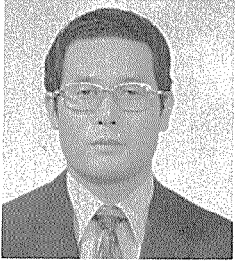
3) 부품의 품질 수준향상 그리고 제조공정의 전문화로 가격경쟁력 등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품질관리와 전체 제조공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OA化(사무자동화)의 연구 개발과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필히 연구 검토를 통하여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업계의 기반 확립과 전문화에 있어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다.



權 赫 祚

東洋精密工業(株) 社長

4) 초기투자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수부품은 전문기술 인력과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참여 허용이 바람직하지만 일반부품은 가격경쟁력 및 품질향상을 꾀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규모가 막대하고 아울러 전문 기술이 필요한 특수부품은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중소기업의 능력만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안전하게 해당 특수부품을 국내 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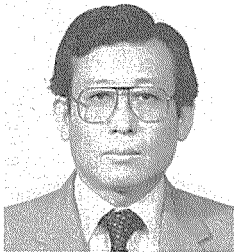


金 鳳 烈
東原電子(株) 社長

- 1) 전자부품 및 소재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술 축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실정은 많은 부품회사가 기능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기술축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기능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를 각 부품업체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세트업체와 부품업체간 계열화를 조직하여 영세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모기업 책임하에 담보없이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 2) 부품업체의 전문화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중에서 국제수준에 미달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부품 중에는 기술수준차이

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경제적 단위가 되지않아 생산을 기피하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인 것이다.

- 3) 궁극적으로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는 자체기술 향상노력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현재 정확한 국내부품공업 수준을 파악해서 평점이하의 분야공업은 기술지도, 제정 및 세제상 지원 등 중점지원책으로 부품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4) 근본적으로 일반중소기업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찬성하지 않는다. 세트업체는 건설한 부품업체들이 원활히 돌아갈 때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능력 및 기술적 문제로 현재 부품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규모에 맞게 대기업을 선정해 해당부문의 부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부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될 경우 관련부품업체의 기술수준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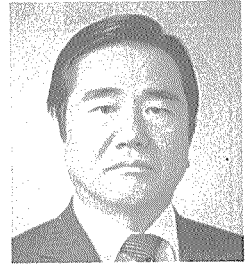
鄭 在 恩
三星電子(株) 社長

- 1) 품질, 기술,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투자, 인력투자, 자본투자 등 전반적인 장기 투자계획 및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각 부문별로 외국수준과 비교 검토하여 업체자체 개발능력이 없으면 외국과의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를 과감히 유도하고 설비측면에 있어서는 폭넓은 자금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소재공업은 자본이 많이 들고 개발기간이 길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개발이나 産·學협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당연히 전문화가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의 중소부품업체의 여건(자체개발능력 부족, 체계적 연구 개발 체제 미비, 자금 및 인력의 부족 등)상 국제경쟁력 확보 및 경제규모로서의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금, 기술, 고급인력, 해외수출 Network 및 경험이 필요하므로 대기업과의 전문계열화가 필

요하다.

- 3) 기술개발, 설비증설, 부품국산화 및 국산화율 제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이다. 기존국산부품은 품질을 더욱 고급화시켜야 하며, 아직 생산되지 못한 품목들을 조기에 국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기술융용투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대기업·정부·관련단체 등 각 부문으로부터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 협의회」, 「산업 기술연구협의회」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 자원 의 공동출자에 의한 조직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주요 핵심부품의 개발 및 고급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막대한 소요되므로 중소부품업체의 노력으로는 곤란하며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과 국제경쟁의 비교우위에서 무수히 많은 전자부품들을 몇몇 품목에 국한하여 기업간의 사업영역을 선을 긋듯이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한된 부품들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비교 경쟁력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 성장과 경쟁을 통한 기업발전 및 내실화에 저해되기 때문에 전자업계의 생산 및 기술구조를 보다 고도화한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생산기술 기반에 입각한 자율적 사업구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1) 전자부품 및 소재공업의 육성시책중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크게 4 가지로 볼 수 있다.
 - 가. 수립된 육성 시책의 일관성있는 집행.
 - 나. 독점성이 강한 재벌기업 이외에는 업종 및 품종의 규제를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문호를 개방.
 - 다. 기존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자금의 측면에서 중점 지원 육성.
 - 라. 필수불가결한 소재공업은 1재벌 1소재 식으로 강제 지정하여 건설케 할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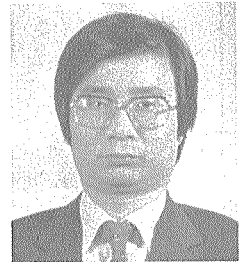
朴 正 灝
韓國마벨(株) 社長

- 2) 부품업체의 전문화는 육성·발전 측면에서 업계에게 유익한 방향을 지향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주 생산품의 성질에 따라 기존시설의 완비를 전제조건으로 기술적 측면이 가능하다면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3) 수입자유화에 대해서는 부품업체가 기술·경영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비해야겠으나 부품수입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 개방을 신중히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국내 부품업

계의 기술·자본 등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전 선진국의 전자부품업체는 완전히 일본의 부품업체가 침식하고만 것이다.

- 4) 부품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품분야 참여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등 자본집약적인 분야는 분담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 1) 첫째, 기술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원방법은 공공 연구소라든지 해외기술자 초빙을 통한 기술 전파가 요구된다.
둘째, 장치산업인 관계로 자금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자금지원이 요망된다.



李 仁 熙
韓國電子(株) 半導體
事業本部 應用技術課 次長

- 2)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인원 및 자금으로 고도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화시켜 기술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3) 수입자유화가 될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의 생산 및 개발 밖에 없다. 다만 정부측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자재에 대한 세세(諸稅)의 합리적인 조정 및

수입품의 덤핑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4) 기본적으로 부품은 부품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부분 및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